

할머니와 토끼

Nop Putdalín, Ngoun Sreymoch, Monn Pech

옛날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는 매일 시장에 가서 바나나를 팔아서 살았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, 할머니는 시장에서 바나나를 다 팔지 못했습니다. 바나나를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. 할머니가 산을 넘고 있을 때, 토끼 한 마리가 할머니를 봤습니다. 토끼는 할머니의 바나나를 먹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. 토끼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.

“아, 저 길에 죽은 척하고 있어야겠다.”

토끼는 길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. 할머니가 토끼를 봤습니다.

“여기 토끼 한 마리가 죽어 있군. 집에 가져가서 요리해 먹어야겠다.”

할머니는 토끼를 바나나 바구니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집에 갔습니다. 집에 가는 도중에 토끼는 바구니 속에서 바나나를 다 먹어 버렸습니다. 할머니가 집에 도착해서 바구니를 침대에 놓았습니다. 그때 토끼가 바구니에서 뛰어 나와 멀리 도망갔습니다. 할머니는 토끼한테 속아서 너무 속상했습니다.